

문화

행복한 책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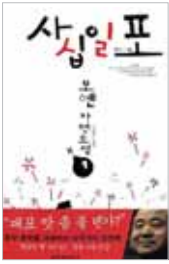
모엔의 '사십일포 1·2' <문학과지성사계>

과격적인 상금을 걸고 1901년 세계최초로 국제무대에 오른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이다. 수상 후보자 및 수상자의 선정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취한다는 평가로 선정 결과에 신뢰성이 높았다. 정치적인 중립국인 '스웨덴'이 주최국이라는 것도 한몫 했다.

2012년 노벨문학상은 중국 국적의 모엔(莫言)에게 돌아갔다.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 중국으로서는 처음인 쾌거였다. 1978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한 모엔은 1987년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인 '홍가오량 가족'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는다. 2003년에는 모엔 문학의 특징을 두루 갖춘 제3기 소설의 대표작인 '사십일포 1·2'를 발표한다.

연령을 왜 열 살에 멈추게 했을까. 작가는 성장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차단된 이유를 성인 세계에 대한, 삭막한 인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덧없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이면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다는 말인가.

열 살인 뱀사오통은 영약했다. 물을 주입한 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즈음, 살아 있는 짐승에게 물을 먹이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육류 가공공장 운영의 주역을 맡았다. 어른들과 고기 먹기 시합에서도 이겼다. 마을에서 쫓겨나기



욕망·쾌락·소유욕... 新중국 풍자

'사십일포 1·2'는 스무 살의 청년 뱀사오통이 우통신(五通神) 사찰에서 과거 열 살 무렵 자신이 겪었던 일을 란파 스님에게 들려주면서 시작된다. 이야기를 하는 청년은 도축 마을에 사는 여전히 열 살 남짓한 소년(고기를 쫓는 뱀사오통)으로 남아있다. 소년의 아버지(애정을 쫓는 뱀룡)는 '야생 노새 아줌마'와 정분이 나서 동배이 지방으로 도망을 간다. 도망간 남편에게 잘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어머니(돈을 쫓는 랑위전)는 약삭같이 돈을 번다. 한편 죽은 소에게 물을 주입하는 등의 권법으로 이득을 취해 마을 사람들을 휘어잡는 촌장(권력을 쫓는 란 씨)은 이들의 갈등을 부추긴다. 도축 마을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욕망과 쾌락, 소유욕으로 꿈틀거리는 인간상을 보여줌으로써 신(新)중국(어찌 중국뿐 일까)을 풍자한다.

전까지 소년의 욕망에 대한 질주는 탄탄대로였다.

그러나 욕망이 좌절된 소년은 자신의 모든 불행이 촌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일본계 박격포를 촌장을 향해 쏘아댔다. 지금 박격포는 문신(文神)의 경지에 오른 모엔에게 돌아왔다. 그는 도축 마을로 비유되는 상상의 세계, 즉 돈과 권력, 그리고 욕정을 향해 신들린 듯 자본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에게 포구를 들렸다.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다이어트 마이트가 살상 무기로 사용되자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것이 노벨상을 제정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노벨상은 어쩌면 수상자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담보하고 주는 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뒤로 조만간 인간 수입이 2억 위안(한화 약 353억 원)에 이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모엔이, 자신의 작품 속 인물처럼 포탄을 맞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가 아니지 싶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작품 즐기면서 '책의 향기'까지

갤러리 가기전 읽어보면 도움되는 다양한 미술서적
작품 역사·배경·감상포인트까지 이해의 폭 넓혀줘

화려한 가을 경치가 막바지를 장식하고 있는 때, 미술작품들과 마주하면서 대화하기도 좋은 시기다.

특히 광주비엔날레(11일까지)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24일까지), 프록트레대전(18일까지), 미디어아트 비엔날레(4일까지)에 전북도립미술관의 '세계미술거장전'까지 볼거리 가득한 미술잔치가 여느때보다 풍성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서점에 가면 '그림책'이 부쩍 눈에 들어온다. "이것도 예술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인들에게 낯선 현대미술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버무리고 작가의 작품을 화려한 삽화까지 끼워넣어 읽기 편하게 만든 것 등 다양하다.

책을 읽다보면 기억해줄만한 감상 포인트가 적지 않다. 깊어가는 가을 날 꼭 한 번 둘러보고 싶은 전시지만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한 관람객들이라면 책과 함께 보면 좋을 듯하다. 알차게 작품을 즐기면서 '책의 향기'까지 취할 수 있다.

이제는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가 쓴 '감각의 미술관'은 '보는 데'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감각의 폭을 넓힐 것을 제안한다. 바라보지만 말고 듣고 만지고 맡아보고 맛보는 등 오감으로 소통하는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미술에 대한 감각의 역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아, 아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대인시장의 '노란 비명' 등 실험적 설치·영상 작품이 적지 않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감상에 도움이 된다.

주자나 파르치가 내놓은 '현대미술에 관한 101가지 질문'은 '개념미술이란 뭐가요' 등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낸 뒤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엮여있다.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의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도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히면서 갈등을 채워준다.

안병광씨의 '마침내 미술관'은 미술품 컬렉터로서의 이야기를 엮어 놓은 것으로,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하우가 담겨 있고 윤병용씨의 '여행길에 만난 국립박물관'은 전국 12개 지역 국립박물관과 전시하는 대표 유물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주변 둘러볼만한 여행지 안내서 역할도 한다. 마샤 터커의 '뉴욕큐레이터 분투기'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볼 수 있



는 전시기획자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명화로 가득한 전시실에 들어섰다 가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치는 관람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도 적지 않다.

플라비우 페브라와 부르노하르트 슈베제가 쓴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술가의 시각을 분석한 책으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작품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예술과 역사 사이의 복잡한 관계, 예를 들면 권력자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미화하고자 했는지를 풍부한 화보와 그림을 곁들여 풀어낸다.

옥스퍼드대 평생교육원의 미술 문화 교육 전문가인 카렌 호젝 제인스 등이 엮은 '세계의 회화'는 조르주 피에르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앤디 워홀의 '마릴린' 등 르네상

스 시대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품어왔던 위대한 화가들이 그린 66점의 회화를 자세히 풀어낸다. 그림이 그려진 배경뿐 아니라 화가의 생애, 표현 기법, 구도 등 내·외적인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다.

문학박사인 쉐린 들라보가 쓴 '작품을 부르는 미술관'의 경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책으로, 한번쯤 본듯한 작품들을 작가의 작품 세계와 함께 엮어내 재미있게 읽힌다.

김영숙씨의 '피렌체 예술산책'은 피렌체 거리 곳곳을 둘러본 저자의 시선을 따라 펼쳐지는 예술 여행기로, 현존하는 르네상스 건물을 중심으로 조각가와 화가들의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이외 '누드를 벗기다', '실립하는 여자들의 그림책' 등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명화 감상법을 들려준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귀비·코스모스·비너... 모두 머리카락

김진숙 '꽃의 노래'전... 20일까지 한국미용박물관

신선한 반전(反轉)을 느낄만한 전시다.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이 없다면 양귀비, 작약꽃, 코스모스, 갈대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질만하다.

김진숙씨가 20일까지 광주시 북구 한국미용박물관에서 여는 '꽃의 노래'전은 머리카락으로 만든 5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김씨는 머리카락을 활용, 온갖 색깔로 염색한 뒤 코스모스, 갈대 등 '아름다운 꽃'으로 바꿔놨고 비너도 제작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머리카락에 주목한 작품 앞에서 작가의 예리한 고도도 신선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노동부가 미용명장 1호로 인정한 김씨는 미용사의 길을 걸어오다 버려진 머리카락에 염색을 하고 풀을 붙여 꽃, 액자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헤



'헤어 코사지'

어 아트'를 최초로 창안해 주목을 받은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영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문의 062-514-6622.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첼로가 들려주는 가을 이야기

진채리 독주회, 5일 문예회관

질어가는 가을 내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악기는 첼로가 아닐까.

첼리스트 진채리 독주회가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예수 띵 멜로디가 인상적인 포레의 '엘리지 작

품 24', 베토벤의 '바이올린첼로와 클라비에를 위한 소나타 4번 작품 101-1', 슈만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개의 민요풍 소품 작품 102', 포퍼의 '타란텔라 작품 33'이다.

목포대를 거쳐 비엔나 시립대학



원을 졸업한 진채리는 목포시향 첼로 차석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선대 등에 출강중이다. 피아니스트 유정아(광산대 교수)씨가 반주를 맡는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러진 화살' 광주국제영화제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 '2012 광주국제영화제'가 수여하는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에 선정됐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에 '부러진 화살'을, 특별상에는 중국 시앤펬 감독의 '티

베트에서 온 여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석궁 테러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한 영화로 화제가 됐다.

특별상에 선정된 '티베트에서 온

여인'은 중국인들의 애환을 영상에 담아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8일 오후 7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영화제 개막식과 함께 열리며 이회호 김대중센터 이사장이 수여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oojang.com